



## Our freedom, our choice, is to live as Christ lived

Fr. Jerome Wolbert, OFM

7월은 온 국민이 나라의 독립을 경축하는 달인데, 프란시스코, 아니 크리스찬의 모든 축일은 우리가 하느님과 아주 가까이 함께 하는 순간이라 할 수 있다. 건국 공신들이 다 가톨릭신자는 아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 삶과 나라를 세우는 일을 이끌어 주시는 존재가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자유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지금같이서는 법으로 정하지 않은 세금을 내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지만 식민지 시대에는 영국이 그런 세금을 걷었고 (지금도 미국의 수도에서 조차 이와 비슷한 명령을 느낄 수 있다.)

우리를 억압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선택한 결과이다. 말과 글은 우리가 골라서 할 수 있고, 우리 곁에 항상 있어 손쉽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문명의 이기도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금전문제라든지, 어디서 살고 무엇을 먹을지, “나쁜 사람들”을 어떻게 피할지 하는 것들도 물론 우리가 선택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 글이 나올 때 썸엔, 나는 Fratelli tutti 를 주제로 하루피정을 하고 있을 것이다. 프란시스코 교황의 글중에 프란시스코 성인이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한 말로 시작하는 이런 구절이 있다. 이 구절은 성인의 권고에서 따온 것인데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이 글은 권고라기 보다 격려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권고”라는 말이 본뜻으로 쓰이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이다.

내가 어려서 지붕위의 바이올린에 나오는 곡을 연주하면서 거기 나오는 테부예라는 사람의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에 공감할 수 있었다. 우리는 부자들 만이 관대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내가 종종 봐 온 바로는 어디로 봐도 부자아닌 사람들이 훨씬

관대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무엇이 우리를 더 관대하게 만드는가? 우리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나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관대하다. 우리가 남보다 더 여유가 있을 때는 쉽게 너그러운 맘을 가질 수 있다. 크리스찬인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유롭고 무한히 도량이 넓어야 한다.

나는 파두아의 안토니오 성인 축일에 이 글을 쓰고 있다. 미사 때 복음에서, 예수님은 누가 속옷을 달라거든 겉옷도 벗어 주라고 말하신다. 그러나 한 나라가 남의 나라 영토를 빼앗으려 하고 복종을 강요하는 판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라 하는 것을 무리한 감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충고하고 격려하는 자유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물론 예수님은 우리에게 관대하지 않은 사람의 요구에도 정중하고 너그럽게 대하라고 되새겨 주신다. 이런 자유가 실행하기 어려운 문제라면 형제회모임에서 형제적 대화나 격려를 통해 해답을 얻기 바란다.

프란시스코 교황은 선행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 “개인의 이익이나 보상을 생각지 않고, 어떤 일을 본디 선택하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때,”(Fratelli tutti, 139)라고. 우리는 그 일이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던지, 또는 그 자체가 좋은 일이 때문에 하던지 선택할 자유가 있다.

우리의 자유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는 죽음의 힘보다 더 큰 힘을 경험하지 못했어도, 교회가 증언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되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견진성사나 도유식을 통해 받은 성령의 은사 때문이다.